

한국본 集部의 형성 배경 및 문헌적 가치

임 형택*

-
- | | |
|-------------------|---------------|
| 1. 冊의 四部分類體系에서 集部 | 3. 士大夫社會와 文集 |
| 2. 集部の 성립경위와 역사 | 4. 集部の 문헌적 가치 |
-

초록: 본고는 한국에서 집부가 발달하게 된 경위 및 배경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그 문헌적 가치를 거론한 것이다. 역사상에 문집이 출현한 시점은 신라말 고려초인데 이 현상을 문인엘리트의 자아각성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했다. 그로부터 5백 년이 지나 고려말에 문집시대가 개막되고 다음 조선왕조에서 본격적인 문집시대가 전개되기에 이른다. 사대부의 역사적 등장, 그리고 사대부가 사회의 지도층으로 자리 잡는 것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핵심어: 한문세계, 집부, 별집-문집, 총집, 문인, 문학적 글쓰기, 송문주의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 冊의 四部分類體系에서 集部

인간의 지식이 책의 형태로 표현된 모두를 한문세계에서는 經·史·子·集의 4部로 분류한 방식이 통용되어 왔다. 이 4부 분류법은 隋唐代에 도입되었던바 清代로 와서 四庫全書라는 명목으로 집대성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해제적 성격으로서 『四庫全書目錄提要』가 도합 200권으로 편찬되었다. 그중에서 집부는 148~200권으로 53권이 배정되어 있다. 「集部總敘」에서 이렇게 밝힌다.

“집부 항목은 楚辭가 가장 오랜 것이고, 다음에 別集이며, 그 다음에 詩文評으로 가장 늦게 출현했다. 詞曲은 閏餘에 해당하는 것이다.”

別集은 개인의 문집을 가리킨다. 閏餘란 역법의 윤달에서 온 말로, 詞曲은 뒤늦게 출현하여 정통이 못되고 부치기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楚辭·別集·詩文評에 詞曲까지 포괄한 集部는 넓은 의미에서 문학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集部總敘」는 ‘文章’이란 개념을 써서 “고인은 文章으로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던 까닭에 秦 이전의 책에서는 屈原이나 宋玉에 대해 賦를 잘하는 것으로 일컫지 않았으며, 漢代에 이르러 비로소 詞人이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詞人은 文人에 다름 아니다. 문학적 글쓰기를 위주로 하는 문인은 漢代 이후에 등장했다는 견해는 정론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집부는 개인 창작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한국은 주지하다시피 한문으로 표기된 서책을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 물론 한문세계의 중심부인 중국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조건에 연유하지만, 한국이 한자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발표자는 전부터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 ‘책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대개 두 가지 점에 근거하는 바, 하나는 “유형·무형의 각종 문화재들 가운데 서적의 형태로 전하는 것이 우선 양적으로 막대”하다는 객관적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책의 세계는 그 자체의 속성이 지식정보요, 학문의 해박함과 창조의

아름다움에 삶의 지혜까지 두루 담겨 있어 내장가치는 물론, 하기에 따라선 활용 가치 역시 거의 무궁무진 한 것”이라는 그 내용적 측면이다.¹⁾

한국의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방대한 서책 또한 4部 분류법이 적용될 것임은 말할 나위 없겠는데, 양적으로 말하면 奎章閣圖書目錄의 경우는 史部의 비중이 크지만 다른 여러 도서관들은 대체로 集部의 비중이 큰 편이다. 史部의 비중은 한문기록이 삶의 실제 및 국정 전반과 직결되어 있었음을 반영한 현상으로, 奎章閣圖書目錄에서 사부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 것은 규장각의 성립과정상의 특수성으로 여겨진다. 집부는 그것이 차지하는 양적 중량에 비례해서 질적 중량 또한 크다고 일단 간주할 수 있겠는데 經·史·子部와는 각도를 달리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한국에서 集部가 발달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2. 集部의 성립경위와 역사

집부에서 別集으로 구분된 文集類가 한국 역사상에 출현한 시점은 언제일까?

『三國史記』 제46권은 문인열전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체재를 갖추어 立傳된 인물은 強首·崔致遠·薛聰 뿐이다. 「強首傳」의 말미에서 “그 당시에 문장으로 強首·帝文·守眞·良圖·骨番 등이 일컬어졌으나 帝文 이하는 사적이 일설되어 立傳하지 못한다”는 언급이 보인다. 그리고 또 46권의 전체 말미에서 문인으로 손꼽히는 이름들을 추가하고 있다. 崔承祐·崔彥摛·金大問은 기록이 있으나 극히 소략하며, 朴仁範·元傑·巨仁·金雲卿·金垂訓은 이름만 등재되어 있다. 김대문의 경우 『高僧傳』·『花郎世記』·『樂本』·『漢山記』라는 서명이 나와 있다.

『삼국사기』의 문인열전에 이름만 기재된 이들까지 다 합해서 15인 등장하는데 문집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최치원이 유일하다. 『新唐書·藝文志』를 인용해서 “최

1) 임형택, 2008 「문명의 전환기에서 다시 발견하는 '책문화' 유산」, 『우리 고전을 찾아서』, 한길사, 18면.

치원은 『四六集』 1권, 『桂苑筆耕集』 12권¹⁾이 있음을 말하고 “또 文集 30권이 세상에 행하고 있”음을 명기해 놓았다. 強首와 薛聰에 대해서는 문집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문집이 실전되었거나, 아니면 당초에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어느 한 쪽일 텐데 아마도 후자일 듯싶다.

고구려와 백제는 『삼국사기·열전』에 문인으로 등재된 인물이 아예 없다. 고구려로 말하면 한자문화의 도입에 있어서 신라보다 앞섰으니 고구려는 당시 삼국 중에서 선진국이었다. 광개토태왕비를 뚜렷한 물증으로 들 수 있겠거니와, 한편으로 乙支文德이 적장에게 보낸 한편의 시, 定法師의 작으로 전하는 「詠孤石」 등을 통해서 서정시의 실재가 확인된다. 백제 또한 일본에 한문을 전수하는 역할을 했던 사실을 일본측 史書에서 확인되는 터이니 이미 한문학의 수준이 상당한 정도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렇긴 해도 양국 모두 아직은 문집의 출현 단계로 나가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전하는 문집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최치원의 『桂苑筆耕集』이다. 따로 『孤雲集』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각종 문헌에 산재한 시문들을 근세에 널리 수집해서 엮은 책이다. 『계원필경집』은 그가 당나라에서 활동할 시기의 작품집이다. 신라사회에서 최치원시대에 문집 글쓰기가 과연 어느 정도나 유행했을까? 『삼국사기』에서 지금 세상에 행하고 있다는 최치원의 문집 30권은 유감스럽게도 중간에 실전되고 말았으나, 그것이 있었음을 증언한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이 최치원의 문집 30권은 그가 신라로 돌아온 이후의 작품을 주로 수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신라사회는 30권의 문집을 산생한 문화적 토양이 조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全唐詩』를 보면 신라문인과 주고받은 시편이 더러 발견되는가 하면 국적이 신라로 밝혀진 인물의 시작품이 4편정도 실려 있다.²⁾ 이런 점으로 미루어 신라의 한문학 수준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 직접적으로 『東文選』에 수록된 최치원의 시문, 그의 글로 비석에 새겨진 ‘四山碑銘’ 등이 문집류 글쓰기의 통행 가능성

2) 『全唐詩』에 수록된 신라인의 한시는 眞德女王的 「太平頌」(11函 10册), 雪瑤의 「返俗謠」(11函 10册), 王巨仁의 「憤怨詩」(11函 3册), 金地藏의 「送童子下山」(12函 1册) 등이 확인된다.

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치원은 한문학의 비조로 일컫거니와, 문집류 글쓰기는 최치원에 이르러 확실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최치원의 시대—10세기를 전후한 시기는 동아시아세계의 일대 역사전환점이었다. 대륙에서 唐帝國이 해체과정으로 들어가자 한반도에서도 천년왕국 신라가 분해되고 있었다. 대륙에서 唐에서 宋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五代가 있었듯 한반도 상에서도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고비에 후삼국이라는 과도적 혼란기가 있었다. 이 시기를 필자는 문학사적으로 주목하여, “역사전환기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서 문인들은 傳奇小說을 하나의 새로운 예술 양식으로 창출”하게 되었다는 가설적 견해를 제출한 바 있었다.³⁾

문인이란 한문세계 특유의 지식인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근대사회에서는 문학적 글쓰기를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문인이라 부르는 사례가 꼭 없지 않으나 대체로 작가 혹은 시인이라고 일컫는데 무엇보다도 서로 성격이 같지 않다. 문인이라면 모름지기 글을 읽고 짓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좁은 의미의 문학적 글쓰기로 한정되지 않고 또 그것이 직업적인 일은 아니었다. 崇文社會의 풍토에서 글쓰기의 능력은 필수 교양일 뿐 아니라 출세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문인은 官人으로 통하게 된다. 이점이 특히 근대 지식인과 변별되는 중세 문인의 특성이다.

1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최치원을 필두로 朴寅範·崔承祐·崔匡裕, 다음 세대에서 朴寅亮 등 문인형 지식인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 대다수가 한문세계의 중심 부인 唐帝國에 유학, 賓貢科에 합격하여 활동하다가 귀국한 엘리트였다. 마침 혼란스런 시대를 만나서 “세상길에 이해해줄 사람 없구나[世路少知音]”라고 최치원이 고독감을 호소했듯, 사회모순도 절감하고 자아를 각성하게도 되었다. 문인의 고독한 자아를 표출한 형식으로 앞서 전기소설을 들었지만 그 보다도 문인의 보편적인 자기표현의 형식이라면 서정적 시양식이었음이 물론이다. 위에 호명된 문인들 모두 한시작품을 남겨 오늘에 전하고 있는바 최승우는 『糊本集』이란 문집이름이 확인된다. 이들 문인엘리트들은 최치원처럼 가야산의 물소리 속에 자신을 감추거나

3) 임형택, 1981 「羅末麗初의 傳奇文學」, 『韓國漢文學研究』 5집: 임형택, 1884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7면.

최승우처럼 견훤을 돕는 이도 없지 않았으나 다수는 고려에 귀의하여 문신으로 역할을 하였다.

고려 후기에 등장한 崔瀼은 『東人之文』이란 이름으로 자국의 시문선집을 편찬하는데⁴⁾ 서문에서 고려왕조는 ‘三韓歸一’의 대업을 이루었으며 기본은 신라에 두는 한편, 밖으로 宋과 遼·金의 인문을 부단히 섭취하여 문장의 빛이 찬연함을 자랑하면서⁵⁾ 덧붙인 말이 있다.

“그럼에도 습속이 순박함을 숭상하여 家集이 있더라도 대체로 손으로 써서 전하며 간행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잃어버리게 되어 널리 전하기 어려웠다.”⁶⁾

家集이란 가문에 속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쓴 말로 문집에 다름 아니다. 문집이 엮여지긴 했어도 필사본이어서 세월을 따라 실종이 되었다는 위 증언을 통해 고려 전기에는 현전하는 문집이 단 한 건도 없게 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增補文獻備考』에는 이 시기의 문집으로 박인량의 『小華集』, 姜邯贊의 『樂道郊居集』, 金富軾의 『金文烈集』(20권) 등 서명이 나온다. 『小華集』에 대해 박인량이 金觀과 함께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그쪽 인사들이 이들의 시문을 보고 감탄한 나머지 간행하기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⁷⁾

다음 고려 중엽으로 와서 무신집권의 시대가 되는데 오히려 문학이 성황을 이룬다. 『翰林別曲』에서 “(李)元淳文 (李)仁老詩 (李)公老四六 李正言(李奎報)·陳

4) 최해의 『東人之文』은 한시를 수록한 『東人之文 五七』과 駢儷文을 수록한 『東人之文 四六』으로 편성되어 있다.

5) “神聖開國，三韓歸一，衣冠典禮，寔襲新羅之舊，傳之十六七王，世修仁義，益慕華風，西朝于宋，北事遼金，薰陶漸漬，人才日盛，燦然文章，咸有可觀者焉。”(崔瀼, 『東人之文序』, 『東文選』 卷84)

6) “然而俗尚淳樸，凡有家集，多自修寫，少以板行，愈久愈失，難於傳廣。”(위의 글)

7) “小華集：高麗 朴寅亮著。(…)以禮部侍郎入宋，有金觀者亦在是行，宋人見寅亮及觀所著尺牘表狀題詠，稱歎不實，至刊二人詩文，號小華集。”(『增補文獻備考·禮文考·文集類』 권247 1~2장)

翰林(陳華) 雙韻走筆”이라고 노래한 것은 바로 당시 문인들이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여 호기를 부리는 모습이다. 여기 거명된 중에서 이인로의 『銀臺詩集』(20권, 후집 4권)은 실전되고 서명만 알려져 있으며, 이규보의 문집인 『東國李相國集』과 진화의 문집인 『梅湖遺稿』는 현전하고 있다. 「한림별곡」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로서 林椿은 『西河集』(6권 2책)을 남겼고, 다음 세대로서 李承休의 『動安居士集』(4권, 附「帝王韻記」)이 손꼽힌다. 『동국이상국집』은 53권으로 실로 동국 초유의 거적이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는 大元帝國의 체제에 참여하면서 제제다사가 등장하여 文運이 활짝 열린다. 앞의 나말여초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된 모양이지만 훨씬 성황을 이루었다. 李齊賢의 『益齋亂藁』·崔瀼의 『拙藁千百』, 閔思平의 『及庵詩集』, 李穡의 『牧隱集』·鄭夢周의 『圃隱集』·李崇仁의 『陶隱集』·鄭道傳의 『三峰集』 등 문학과 사상사에서 빛나는 저술이 이때 대거 출현하여 조선왕조로 이어지게 된다.

총집류와 시문평류는 문집류의 부수적인 성격이다. 총집류란 『四庫全書目錄提要』에서 “문적이 날로 번창해서 산만하게 되자 이에 총집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듯, 정리·선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문평류란 문자 그대로 문학적 글쓰기가 발전된 단계에서 나타나는 비평작업의 결과물이다. 고려조는 문집류가 성행하지 못한 편이었기에 총집류와 시문평류 또한 활발하지 못했다. 총집류로는 전기에서 『十抄詩』, 후기에서 『東人之文』이, 시문평류로는 중기에 李仁老의 『破間集』과 崔滋의 『補間集』, 후기에 李齊賢의 『櫟翁稗說』이 확인되는 정도이다.

『十抄詩』는 2권 1책의 소책자인데, 여기에 주석을 붙인 『夾注十抄詩』 3권 3책이 따로 전하고 있다. 당나라의 시인 26명, 신라의 시인 4명의 7언율시를 시인별로 각기 10편씩을 뽑아서 300편으로 엮어낸 시집이다. 한국 역사에 문집이 처음 등장한 10세기의 후반으로 와서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에 수록된 신라의 문인은 다름 아닌 최치원·박인범·최승우·최광유이다. 『십초시』의 주석 작업이 고려 후기에 이루어진 점 또한 특기할 사실이다.⁸⁾

8) 임형택, 2009 「『名賢十抄詩』 해제」, 『來注名賢十抄詩』,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고려후기의 총집류로 崔瀧의 『東人之文』과 趙云佐의 『三韓詩龜鑑』이 전하고 있으며, 동시기에 나란히 金台鉉의 『東文鑑』· 金敬叔의 『選粹集』이 출현했던 사실이 서명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편찬 사업이 이루어진 것과 함께 문집이 대거 출현한 현상은 우연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본다. 필자는 이런 현상을 당시 문인지식인들이 대원제국의 체제에 참여하면서 각성하게 된 東人意識과 文明意識의 산물로 해석하는데, 이 의식이 조선왕조로 인계되어 『東文選』으로 집대성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⁹⁾

『파한집』과 『보한집』을 시문평류로 구분하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 작은 한문 세계의 고유한 글쓰기 방식인 筆記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비평서로 보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섞여있는 모양새다. 문인의 서재에서 문인의 관심사를 기록한 내용이어서 말하자면 한담비평이다. 시가 문인의 주 관심사이므로 詩話的 성격을 띠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이인노→이규보→최자의 시대는 무신집권기이지만 도리어 문예를 애호하는 풍조가 소생하여 시문평류가 발전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이제현의 『櫟翁稗說』로 와서는 史話的인 前集과, 시화적인 後集으로 묶여져 있다.

3. 士大夫社會와 文集

한국문화의 이정표 상에서 문집시대를 설정해 본다면 10세기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천여 년이다. 한반도상에서 한자를 도입, 문자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위로 소급이 되지만 한문학 형식으로 자아를 표현하는 문인형 지식인이 등장하기는 앞서 말했듯 나말여초의 전환기로 와서였다. 하한으로 잡은 20세기 전후는

9) 필자는 이 단락의 견해를 「고려 말 문인지식층의 東人意識과 文明意識: 牧隱文學의 논리와 성격에 관한 서설」(『실사구시의 한국학』, 2000)에서 처음 제기했던바 뒤에 논의의 틀을 「문명개념과 한국의 역사전환: 14세기 말과 20세기 전후」(『문명의식과 실학』, 2009)로 확대하였다.

중국 중심적인 한문세계가 해체되면서 서구 주도의 근대, 근대문화에 합류한 지점이다. 그 이후에도 한동안 한시문을 짓고 향유하는 풍조가 소멸하지 않았으며, 이때 많은 문집류가 간행되었다. 이는 한문문화가 워낙 장기간에 걸쳐 폭넓게 존속한 까닭에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하겠는데, 결국 한글이 한문을 대체하여 문집류 글쓰기는 그 제도적 기반과 함께 마침내 종언을 고하게 된다.

그런데 문집시대 천여 년의 도정에서 정작 문집 글쓰기가 질적·양적으로 크게 발전한 시기는 고려말엽이며, 이후 그 추세는 조선왕조로 이어져서 저변을 확대하고 수준이 상승하게 되었다. 현전하는 문집이 증명하는 바, 규장각 소장 방대한 문집류는 거의 대부분이 조선왕조가 수립된 이후의 산물이다. 본격적인 문집시대라면 14~20세기에 이르는 6백 년이다. 문집류가 하필 이 기간에 집중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음의 답은 다른 어디가 아닌 集部 형성의 사회적 배경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는 士大夫 국가로 규정짓듯 사대부가 주도하는 사회였다. 고려 말엽에 신흥한 사대부층이 중심이 되어 고려 체제를 밀어내고 등장한 나라가 조선이었기 때문이다. 사대부란 한문세계의 보편적 용어이며, 우리의 고유한 말로는 兩班이다. 양반은 고려 때의 제도인 ‘文武兩班’에서 유래한 것이다. 어원적으로 보면 文班과 武班이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지만 조선사회에서 무반은 존재감이 미약했다. 문학 교양은 사대부의 계급적 속성이며, 그 역량을 발휘하여 관인으로 진출, 국정을 담당하게 된다. 사대부는 글 읽는 선비[士]와 국정에 종사하는 ‘대부’의 합성어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士大夫=文人=官人의 등식이 성립할 정도였다.

조선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門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으며, 문벌의 중시는 곧장 文翰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문한이란 經史의 지식을 바탕으로 삼아 詩文을 지어낼 수 있는 문학 교양을 뜻하는 말이다.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 제도는 벌써 고려 초에 도입되었던 터다. 일찍이 능력 본위의 시스템이 작동했던 셈인데 과거시험 그 자체가 문예로 겨루는 방식이어서 문학을 중시하는 풍조에 부채질을 하게 되었다. 옛날 속담에 “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양반이나”고 일렀다.

문헌은 양반의 체통을 유지하는 필수 요건이었다. 이 모두 승문주의가 빚어낸 양상이거니와, 문집은 가문을 장식하는데 매우 알맞은 품목이었다. 문집이 사대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던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록 하나를 예시해 본다.

“근세에 영남 인사들은 걸핏하면 祠廟를 사적으로 세우고 문집을 간행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鄉先輩이고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진 존재는 아니다. 그네들이 이렇게 하는 속셈은 오직 사대부라는 칭호를 잃지 않으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가문의 형세가 한미해져서 조정의 과거에 급제, 벼슬길에 오를 길은 이미 가망 없게 된 터라, 실로 門戶를 유지하여 향리에서 호령하기 어렵기에 아무쪼록 編戶와 구별지어 보려는 의도이다. 이에 자기 선조 중에서 인품이 다소간 성실한 것으로 알려졌고 겨우 亥자와 豕자를 구별할 정도의 문식이 있는 이를 내세워, 평소에 읍은 시구라던가 편지글 약간을 주어모아서 판각을 하여 이름을 ‘某先生遺稿’니 하고 붙인다. 그리고 또 같은 고을이나 인근 지역의 인사들을 불러 모아 이른바 ‘杖屨藏修之地’(제자를 가르치고 몸을 닦은 장소라는 의미, 인용자)라 하여, 재목을 준비해서 건물을 세우는데, 목수를 모집하고 백성을 사역하여 한번 말이 나왔다면 몇 날 가지 않아 조성을 한다. 그 손쉽게 여반장이다. 너나없이 본을 따서 드디어 모씨의 世德祠라고 일컫는 것이 거의 없는 고을이 없다.”¹⁰⁾

19세기를 살았던 洪翰周의 『智水括筆』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흥한주는 경화사족 출신의 명사이다. 그가 묘사한 영남의 풍속도는 京華 안목의 편견이 없지 않다고 하겠으나, 세태를 잘 꼬집어낸 것으로 여겨진다. 문벌을 중시하는 사회의 말폐적 현상이며, 그 말폐적 현상은 정도 차는 있겠으나 다른 지방에도 없지 않았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문집이 양산, 범람하게 된 사정을 실감케 한다.

그런 한편 祠宇(祠廟와 같은 말)나 서원의 건립과 함께 문집의 간행에 대해 본디 어떻게 의식했고 또 관행이 어떠했던가를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사우나 서원은 해당 도내의 공론에 붙여져서 추진되는 것이 불문율이었으며,¹¹⁾ 문집 또한

10) 洪翰周, 1894 『嶺南文集』, 『智水括筆』, 해외수일본, 아세아문화사, 347-351면.

11) 필자가 전해 들은바 전라도의 경우 이런 문제에 당해서는 호남을 대표하는 전주·나주·광주·남원의 향교에 문서를 발송하여 그 회답을 들어서 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한다. 여론수렴의 과정으로, 공론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이었던 셈이다. 네 고을 향교에 문의하는 것을 ‘四長館 通文’, 그 회답을 ‘答通’이라고 일컬었다.

비록 家集이라고 일컬었지만 그것을 공간하는 데 당해서는 나름의 분별의식이 작동했다. 여론수렴의 절차가 있었고, 그런대로 自淨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이다. 가문의 전통과 명분이 중시되던 근대 이전의 시대에는 가문의 사회적 의미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기 조상이 남긴 문적들을 각별히 소중하게 취급하였으며, 그렇기에 더욱 간행하는데 신중을 기하였다. 때문에 비교적 엄격한 판단에 의거해서 조상의 유고를 ‘先稿’ 혹은 ‘家乘’ 등의 서명을 붙여 알뜰히 사본으로 정리, 가문에서 소중하게 전했으며, 간행에 붙이는 일은 보류해둔 사례가 허다했다.

4. 集部의 문헌적 가치

집부의 문헌적 가치에 대해서는 두 차원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내용적 측면을 주로 따져서 평가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서지 사항을 주로 따져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규장각 소장 귀중도서의 현황과 가치’를 주제로 제시한 터이므로, 시선이 후자에 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서지학에는 식견이 충분치 못하다. 문집의 의의를 일반적 차원에서 간단히 서술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본 발제를 끝맺으려 한다.

중국의 근대학자 章炳麟은 “무엇을 문학이라 하는가? 文字를 竹簡에 표현하는 것이기에 文이라 이르며, 그 법식을 논하는 것이기에 문학이라 이른다”(「論文學」)고 갈파한 바 있다. 광의의 문학 개념인데 문집 글쓰기를 염두에 둔 정의라고 하겠다. 문집에 수렴된 내용은 문학적 창작에 그치지 않으며, 근대적인 지식의 분화를 넘어선 것이다. 퇴계의 심오한 학문이나 연암의 『열하일기』 같은 탁월한 여행기도 문집에 포괄되어 있는 것이다. 다산의 『與猶堂全書』를 보면 시문집과 經學의 저술, 그리고 사회과학·의학에 걸쳐서 지식의 총화를 이루고 있다. 물론 지식의 근대적 분화가 일어나기 전 단계이다. 章炳麟은 근대를 호흡한 학자임에도 총체적인 사유를 지속하고 있다.

책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가치를 가늠하는 데는 희귀성이 첫째 요건이 될 것이

다. 이점을 고려하면서 상정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들어 본다.

1. 刊本은 연륜이 중요한 기준이다. 고려본은 보물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며, 조선본이라 해도 임진왜란 이전의 간본으로 완질이면 귀중본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서지적인 면에 그치지 말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례로 金駟孫의 『濯纓集』과 李陸의 『靑坡集』을 들어보자. 두 문집의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古本과 후일의 개간본을 대조해 보면 『탁영집』에서는 사상사적으로 주목되는 정통론에 관한 글이 개간본에서 탈락되었고,¹²⁾ 『청파집』의 劇談部에서 문학적으로 흥미롭게 읽혀지는 여러 편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된다.¹³⁾

중국본에 대해 근대로 와서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제적 안목이 요망된다. 宋元板은 각별히 취급해야 할 것임은 물론 明清板이라도 내용이나 회소성을 따져서 가치가 인정되면 귀중본으로 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래 중국 책을 한국에서 간행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寫本에 대해서는 가치를 별로 두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간본에 못지않게 가치를 갖는 예가 얼마든지 있다. 저자의 친필 초고, 미간 사본, 간행 이전에 작성된 초고본, 글씨가 예술적으로 빼어난 사본, 이런 등등은 응당 소중히 챙겨야 할 것이다. 규장각 소장 사본 중에서 필자가 중요하게 보았던 몇 종을 생

12)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탁영집』(德養齋 소장)을 보면 卷首部와 1, 2권을 합해서 2책이다. 앞의 16板에 걸쳐 실린 글은 對策文으로 권차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정통론을 다룬 내용인데 夷狄의 朝代인 元을 중국역사의 계통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탁영이 제출한 논지는 元은 비록 이적이 세운 국가라도 천하를 통일하여 상당 기간 존속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제왕의 이어짐은 끊어져서 안 되고 천하는 하루라도 군주가 없을 수 없으므로 元代를 정통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였다. 17세기 중엽 이래 반청 이데올로기로 경직된 분위기에서 이런 실은 용납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13) 『청파집』 소재의 극담부는 『大東野乘』에 『靑坡劇談』이란 표제로 전제되어 있다. 필자는 『한문서사의 영토』(태학사, 2012)를 엮어 내면서 초간본의 극담부에서 흥미롭게 읽혀진 2편을 뽑아서 「騎牛女」와 「女奴」란 제목으로 수록했다. 이 2편 모두 재간본에서 삭제된 것이었다. 『탁영집』이나 『청파집』의 재간 과정에서 저질러진 삭제는 시대의 검열에 의한 것이었던 셈이다.

각나는 대로 열거해 둔다.

林億齡, 『石川集』 5책. 전후에 나온 간본이 여러 종 있으나 이본으로 독자적 의미를 지닌 것임.

金時習, 『梅月堂集』 9책. 지질과 필체가 양호한 고사본.

許筠, 『惺所覆韻藁』 11책. 정조의 낙관이 찍혀 있음.

李義師, 『醉松詩』 3책. 미간행 시집 사본으로 작품성이 빼어남.

沈大允, 『白雲文抄』 3책. 유일본. 그의 여러 저작 초고본들이 함께 수장되어 있음.

丁若鏞, 『與猶堂集』 78책. 고종의 명으로 필사한 책으로 알려져 있음.

3. 명사의 수택본, 교정을 보았거나 의미를 갖는 기록을 남긴 것 등은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4. 특별한 경위가 있는 것

李恒福, 『白沙集』 초간본 1629년 강능판. 당쟁사에서 논란이 빚어졌던 것이다.

丁若鏞, 『與猶堂全書』 76책. 1930년대에 신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다산 서거 100주기를 맞아 '조선학운동'의 일환으로 공간된 책이어서 의의를 갖는다.

5. 불가의 문집. 승려가 문집형태로 저술한 것을 들어보자면 고려왕조에서 『大覺國師文集·外集』(義天, 23권, 외집 13권 도합 3책) · 『圓鑑錄』(冲止, 1권 1책) · 『懶翁和尚語錄·歌頌』(惠勤, 2권 2책), 조선왕조에서 『虛應堂集』(普雨, 3권 1책) · 『淸虛堂集』(休靜, 4권 2책) · 『四溟堂集』(惟政, 7권 1책) · 『枕肱集』(懸辯, 2권 1책) 등 등이 있다. 불가문집은 유가문집에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종류도 적고 분량도 얼마 되지 않으며, 남아있는 부수도 많지 않아서 희소가치를 지니고 있다.

불가의 문집에 대해서는 앞서 거론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에 덧붙여서 잠깐 언급해 둔다. 문집이란 애당초 문인사회에서 형성된 유교문화의 한 부분이다. 한시문을 짓기에 열중하고 그것을 상호간에 주고받는 행위는 승려의 본령은 아니었다. 그런데 고려조에서 조선조로 이어진 사회전반의 승문적 분위기에서 문집 글쓰기가 승려들에게까지 파급이 되었다. '詩僧'이 출현, 문인들과 교유한 사례도 허다했다. 요컨대 불가의 문집은 유가문화의 압도적 영향으로 성립한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불교문헌으로서의 독자적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 승려가 남긴 문집을 접해보면 대체로 어법이 直切하고도 반어적이며, 시편들에서는 禪的 미의식이 돋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나옹화상가송』이나 『침굉집』에서 볼 수 있듯 대중 교화적인 가사가 수록된 점도 특이하다.

논문투고일(2015. 4. 30), 심사일(2015. 5. 21), 게재확정일(2015. 6. 5)

참고문헌

- 『三國史記·列傳』 권46.
 『四庫全書目錄提要』 集部 148-200권.
 『全唐詩』, 1986 上海古籍出版社 영인본.
 崔瀼, 「東人之文序」, 『東文選』 권84.
 『增補文獻備考·禮文考·文集類』 권247.
 洪翰周, 1894 『智水括筆』, 서벽외사 해외수일본, 아세아문화사.
 東亞文化研究所, 1965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임형택, 2008 『우리 고전을 찾아서』, 한길사.
 _____, 2009 「『名賢十抄詩』 해제」, 『來注名賢十抄詩』 한국학중앙연구원.

Abstract**Transformational Contexts of Korean Jip-Bu and
Its Bibliographic Value**

Lim Hyong-taek

The aims of this essay is to explain how the Jip-bu (the collection of personal literary works; 集部) reached great elaboration in Korea and to bring up its literary worth. The first Mun-jip(the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was published in the 10th century, when the intellectual came to have self-consciousness as literary elites during the change of dynasty from Silla to Coryo. Mun-jip became the most general form of publication when the Coryo dynasty fell and this trend grew even more dominant in the Joseon dynasty. The rise of Sa-dae-bu(literati elite) in this er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 in this progress of literature.

Key words : Classical Chinese world, Jip-bu, the anthology and the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complete collection, literati elite, literary writing, literaryism